

Digital Camera (3)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유행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 전시할 공간 등의 문제로 프로에게만 가능했던 '사진찍기'를 일반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디카를 휴대한 수백만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세상을 바꾼다.

글 : KESA 강중구 주임

내가 원하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피사체)에 따라 그 촬영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그 환경에 따라서도 촬영법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달에 언급된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촬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배경이 날아간 사진 찍기 - 아웃포커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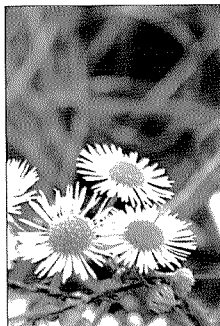
사진을 찍다보면 아웃포커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아웃포커싱은 심도와 연관이 있는데 얇은 심도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 바로 아웃포커싱을 잘 표현한 사진이다. 심도란 초점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부분은 흐리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주로 배경보다는 피사체를 강

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인물 사진이나 접사사진이 그에 해당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얇은 심도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최대한 개방해야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고를 때 밝은 렌즈의 디지털 카메라를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밝은 렌즈라 함은 조리개 값이 작은 것을 말하는데, 렌즈의 조리개 값은 렌즈 옆에 명시되어있으며 최대 개방수치 값을 말한다. 값은 작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개방된다. 또,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CCD가 클수록 나타내기가 쉬우며, 망원 쪽으로 갈수록 더욱 유리하다.

아웃포커싱은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화면 가득 담는 것이 좋다.

아래 사진들은 예제 사진들이다.



● 아웃포커싱을 이용하여 원근감을 나타낸 사진



● 적당한 구도를 활용하여 인물을 부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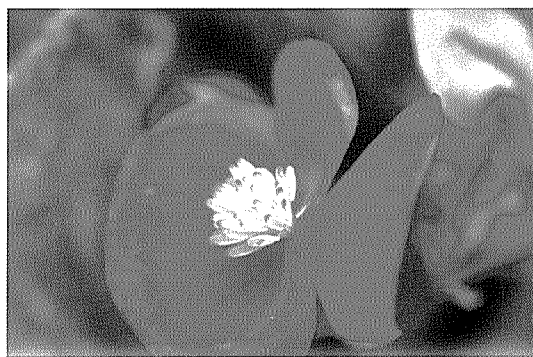
■ 사물을 가깝게 찍고 싶을 때 - 접사

최근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 촬영범위가 2cm나 혹은, 4cm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스펙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접사 촬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렌즈와 피사체까지의 최대 근접 거리를 말한다. 접사 촬영은 콤팩트형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쉽게 아웃포커스를 맛 볼 수 있다. 콤팩트형인 경우 광각과 망원 모두를 커버하는 줌 렌즈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광각의 왜곡을 느끼고 싶다면 광각 쪽으로, 조금 더 아웃포커싱을 원한다면 망원 쪽으로 해서 촬영을 하면 될 것이다.

꽃과 같은 무생물을 촬영할 경우에는 가까이서 찍어도 무리가 없지만 곤충과 같은 생물일 경우에는 가까이 가면 달아나기 때문에 망원을 이용한 접사를 활

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곤충을 찍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모르는 곤충을 위해 고속의 셔터 스피드의 확보가 중요하다. 적절히 초점 범위를 유지하면서 고속의 셔터 스피드를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접사를 촬영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까이서 찍는다고 멋진 사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적절한 구도가 필요한데, 일단 찍고자하는 피사체가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쪽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피사체를 적절한 위치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화면에 담아야 할 것이다.



식물과 곤충을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접사를 활용한 예제 사진들

다음호에서는 패닝샷과 빨리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의 촬영법을 알아보자.